



▷타즈마할과 아그라성(268×170cm).

이탈리아 대리석·페르시아 솜씨로 완성
세계문화유산 지정 ‘힘’ 되는 관광자원

인도 그림기행

14 그림·글 이호신

인도는 안개의 나라인가 보다. 새벽의 물안개가 한나절 피어 오르지 운이 좋지 않으면 사진 한 장 제대로 건질 수 없다. 아그라의 주요 명물 중 무굴제국의 ‘아그라성’을 찾는 길목도 안개에 젖어 있어 마치 과거와 현실이 한 영상의 실루엣처럼, 그리고 붉은 성은 거대한 역사를 섯갓같이 느껴진다. 악바르(Akbar, 1542-1605)왕 때 성을 착공하여 90여년 만에 그의 아들 자한기르(Jahangir 1569-1627)에 의해 완공됐는데 왕비 누르자한을 위해 지었다고 전해온다. 높은 담장과 웅대한 건축에 섬세한 장식이 거만 붉은 벽돌로 이루어졌는데 특히 왕비가 머문 곳은 화려한 문양으로 눈길을 끈다. 성은 이중으로 외벽을 쌓고 외부 침입을 막기 위해 바깥 성안에 맹수들을 길렀다고 한다. 이전 나무와 숲만 무성한 외벽너머로 희미하게 아무나강이 흐르고 그 너머로 또 아스라이 ‘타즈마할’이 떠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 타즈마할! 타즈마할의 명칭은 무굴제국의 5대왕 사자한(Shah Jahan, 1592-1666)이 그의 왕비 뭄타즈 마할(Mumtaz Mahal)의 유언에 따라 무덤을 지은 것으로

사랑의 무덤, 역사의 보은

(타즈마할과 아그라성에서)

“아름답다고 하기에 너무나도 광기의 세계이군요. 한사람의 사랑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따랐을 것을 생각하니 다시 오고픈 마음이 사라집니다.”

내심 짐작해 보지 않은 바 아니었으나 실로 충격적이었다. 그 후 한국에 돌아와 읽은 글 중 <야생초 편지>(황대권)로 알려진 저자의 발언은 타즈마할에 대한 이해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오늘날 세계의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관광유적들은 모두 한때에 영원히 존속할 것 같은 착각속에서 번영을 구가하던 문명들이었다. 이 찬란했던 문명들이 어떻게 해서 망했는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공통적으로 자연의 질서에 반하는 인간의 교만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점은 확실하다. ... 후대의 사람들은 그 교만을 보고 감탄하며 선인들의 위대한 문명에 경외심마저 품는다. 슬프리이다. 사실로 말하자면 그 위대한 유적들은 무지막지만 인권유린과 치유할 수 없는 자연파괴위에 세워진 것이다. (‘시민의 신문’ 2003. 6. 30)

윤회 실감나는 ‘아름다운 무덤’

그 이름을 줄여 명명한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역사는 사자한이 그의 아들 아우랑제브(Aurangzeb, 1618-1707)에 의해 말년 아그라성에 유배되어 쓸쓸히 죽어간 후 비로소 왕비의 무덤(타즈마할) 곁에 돌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보름달 아무르강에 비친 흰 대리석의 타즈마할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온갖 영화(榮華) 번민으로 남아 밤을 뒤척였을 한 사내의 운명을 그려본다. 빛과 그림자, 인과응보(因果應報)의 삶, 오 덧없는 인생이여. 차는 이제 안개 속을 뚫고 아무르강을 건너 타즈마할에 닿는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인도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타즈마할은 22년간 2만명의 장정이 동원되어 1653년에 완공됐다. 이탈리아에서 흰 대리석을, 페르시아에서 공작(工巧)을 불러와 지은 건축물로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이탈리아의 콜로세움, 프랑스의 베르사이유 궁전처럼 막대한 물자와 인력으로 국고를 바다내어 당시엔 큰 원성을 샀다고 한다. 한 인간의 의지와 집념의 완성을 위해 상처받은 현실인 것이다. 어쨌든 한 사나이(사자한)가 이뤄낸 불타는 사랑과 영혼의 흔적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전탄을 금하지 못하게 한다. 진입로 양쪽길 사이로 난 수로에 비친 건축물, 좌우 기둥의 대칭이 집중적으로 사람의 시선을 끌리게 하는 현상을 가져오고 다가서면 우아, 치밀, 현란한 장식앞에 오금이 저러오는 것이다. 저토록 간절한 비원의 낮이 세세생생(世世生生) 두 영혼의 만남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일까. 어둠속에서 인도인들의 특유한 비릿한 땀 냄새 섞여 겨우 손전등으로 내부 장식을 살펴보고 나오자 앞마당은 어느새 사리를 입은 인도 여인들의 발길로 만원이다. 한 연인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표식이 되고 있는 타즈마할은 특히 여성들에게 큰 인기인 듯하다. 그래서 일까. 온갖 색채의 사리를 걸친 귀부인들의 행렬은 흰대리석 건축물 주변에 잘 꾸며진 꽃밭처럼 느껴진다. 여기에 외국 관광객이 쏟아져 들어오니 지구촌 꽃길이 흐르고 있는 셈이다. 타즈마할 관계 자료와 출토 유물을 기념관에서 살펴보고 길을 되돌아서며 동행인 여 기자에게 내가 물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리고 무덤 느끼셨나요?”



▷인디아의 꽃(64×48cm).

아름다운 대리석을 산더미처럼 채석하여 나르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애를 이곳에 바치게 한 타즈마할의 본질과 평가는 과연 어떠한가 하는가. 하지만 인도는 물론, 세계 문화유산으로서 오늘날 수많은 발걸음을 끌어들이는 관광자원으로 가난한 조국에 큰 힘이 되고 있음을 또 어찌 해석하랴. 역사는 윤회(輪廻)하는가. 따라서 그 날의 영혼들이 깨어나 오늘의 실정을 보면 크게 다행이다 싶고 생애의 공지를 새삼 피력하지는 않을까. 그리하여 그날의 의지 또한 송고 하였고라고 자위할지도 모를 일이다. 결국은 빛과 그림자, 인과응보의 역사. 사랑의 무덤이 빛어낸 역사의 보은. ‘타즈마할’을 떠나며 나그네는 윤회의 실감을 더한다.

hst1957@ycos.co.kr

협찬 : 안성 도피안사 · 실크로드여행사

화제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

선물로도 최고! 성물에도 최고!



2가지소원이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北韓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발견되는 세계 하나 밖에 없는 희귀 금강석으로 이곳은 서산대사의 고향이며 원효대사께서 해골땀을 드시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 안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역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입니다.

걱정고민 금강염주가 해결
금강염주는 수천 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으며 불에 넣어도 타거나 녹지 않고 24시간 생육광선과 금강의 강력한 기가 발생되며 정진 발원시 일년무야 되는 세계유일의 염주입니다.

금강의 강력한 기가 발생하는 금강염주
금강염주는 수천 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으며 불에 넣어도 타거나 녹지 않고 24시간 생육광선과 금강의 강력한 기가 발생되며 정진 발원시 일년무야 되는 세계유일의 염주입니다.

부처님께로 가까이...
염주는 부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의 법구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 받고 소원이 성취됩니다.

금강염주 점안식 방법
금강염주를 받으면 사용 하실분이 꼭 개봉해야 하며 가정에서는 상위에 올려놓은 다음 2가지 소원만 기원하며 3배 하신후 어느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3일간은 높은 곳에 올려놓고 3일후부터 사용하셔 됩니다. 금강염주는 12단주와 108염주 1set이며 신용카드로도 분할구입되며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전혀보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편으로 등기소포로 전국어디나 받아 점안식을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金剛念珠社 서울시 중로구 관훈동 177 대원 B/D406호

— 연꽃축제기념 행사기간 동안 전화 주시면 3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핫~이슈! 세계최초 24시간 대화하는 영어선생 영어로 말하는 로봇

뉴~지니컴



한번 말하는 영어가 백번 듣는 영어보다 낫다!

로봇이 사찰에서 스님과 대화하는 뉴지니컴

스님, 불자님 영어회화 이제 걱정 끝!

스님, 불자님께서 영어를 배우고자 해도 지리적, 환경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영어를 배우기란 참으로 어렵다. 또한 학원에서는 직접 말해볼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이 우리의 교육현실이다. 외국인들은 우리 불교문화를 보고 배우려고 할려고 하며 국제 공용어인 영어는 사찰내 스님은 물론 업무로 보는 사람들에게도 필수이다. 워터스에서는 영어로 말하는 로봇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음성 인식 기술을 응용한 말하는 영어로봇의 인기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기도 하다. 영어는 영어로 대화 할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 빠르게 영어를 배울 수 있다. 사찰에서 할 수 있는 학습법이라고는 거의 듣기위주 혹은 듣고 그대로 따라하기 위주의 CD, 테이프 등 모든 것을 동원 하지만 대부분 실패하고 만다. 가장 중요한 ‘말하기’를 하지 못하면서 반쪽 공부에 만족해야 했는데 영어로봇 뉴지니컴의 보급으로 1:1 쌍방향 대화 학습이 가능해졌다. 영어 학습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청취력’ 훈련이다. 청취력을 위해서라도 가장 중요한 영어학습 방법으로 로봇 뉴지니컴이 영어로 한마디 하면 스님께서 영어로 대답해야 하고 스님께서

전혀 없어도 뉴지니컴은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 침만 바꾸면 누구나도 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다. 귀부터 트이지 않고는 어떤 단어나 문장을 들어도 자기만의 데이터로 전환시키지 못한다. 영어로 대화하는 로봇 이름이 뉴지니컴으로 뉴지니컴은 스님께서 1:1로 재미있게 영어로 대화 할 수 있는 미국 친구와 같다. 영어로 말하는 뉴지니컴은 전면에 LCD창을 통해 애니메이션 동영상 영어 한글자막을 자세히 보여줘 영어의 빠른 이해를 도우며 언어 감각과 함께 문자 감각까지 동시에 키울 수 있다. 사찰에 하나만 있으면 모든 스님께서 재미있게 영어를 마스터 할 수 있다. 이제 말하는 로봇 뉴지니컴의 출시로 누구나 3개월이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것이다. 신중하면 전국 어디든 받으실 수 있으며 카드분할도 할 수 있다.

몸체 전면에 설치된 LCD창을 통해 애니메이션 동영상 영 / 한글 자막을 자세히 보여주어 영어의 빠른 이해를 돕는다. LCD형 영어로봇 '뉴지니컴'

학습 문의 전화 (02)3210~3178, 9